

# 시민 함께하는 군산시 도시재생 빛 보다

2014년 월명동·2019년 해신동 주민 주도형 소규모 다양한 사업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도시경쟁력 회복



군산시민문화회관 옥상내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간.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군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월명·영화동 일원, 2018년 중앙·산북동, 2019년 해신·소룡동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 주민주도형 소규모 도시재생이 이어지면서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중앙동 재생사업은 옛 수협창고, 꾀보선창, 한국선급, 한화부지, 폐철도 등 핵심 유휴부지의 거점개발을 통해 중심시가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콘텐츠팩토리(문체부), 수제맥주특화사업장(농식품부)은 부처 협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도 지난해 말 착공했고 신영시장 인근의 공동덕장, 공공창업공간 조성, 테라로이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한 산북동 재생은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마을센터, 농기계복합주차장 조성, 생활도로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 마을공동창고, 마을사랑방, 커뮤니티센터, LH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이 이뤄졌다.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함께 신규로 도입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90억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야외주차장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어렵게 공모를 따낸 해신동 도시재생은 2024년까지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해 수상물센터와 연계한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문화파크 조성,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올해 연차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소룡동지역은 2023년까지 4년간 140억원을 투입해 마을도로 확장, 선형공원 조성, 주차장 개설 등 주거지지원형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산업집체 등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존의 자원과 특성을 살린 사업 유형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에 산재한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들을 활용해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익산시 '활성탄 섬유' 활용 혁신성장 기반 구축...국비 100억원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생산 장비 도입

익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 중 활성탄 섬유 기술 지원·산업화 촉진 사업 분야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해 추진한다. 오는 2022년부터 3년간 총 143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43억원)이 투입되며 활성탄 섬유

생산과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섬유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천연섬유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섬유 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사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에 적합해 방화복, 소방복과 같은 안전보호복과 필터 소재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이미 구축된 혁신지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성장추진 정책 중 하나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섬유산업을 기존의 입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로 고도화·다각화가 가능하도록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남원시 5월 한 달 지방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남원시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

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 외의 신고·납부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 접수기간 연장

대상 확대하고 매출 기준도 완화

코로나19에 따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의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접수기간도 연장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워 신청이 부진함에 따라 접수 마감 기한을 14일로 연장됐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해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버섯류와 산나물류, 약초류 등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의 경영주 가운데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매출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5만㎡ 미만이나 임야 외 토지면적 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 등)에게 지원한다. 이 사업도 임야면적 기준이 5만㎡로 대폭 상향 되고 임야 외 면적도 5000㎡로 기준이 변경됐다.

임업인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고 14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1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를 바우처를 지급한다. 레저와 의료 및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 정읍시 5월의 역사 인물 손화중·박만환 선정

정읍시는 5월의 역사 인물로 손화중·박만환 선생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인문·역사적 가치와 위상,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달부터 매달 두 명씩 정읍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1861년 정읍시 과교동에서 태어난 손화중 장군은 대표적인 동학 지도자다.

1894년 동학군의 전주화약 후에 나주로 가서 폐정개혁을 지도했으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실패하자 광주로 후퇴했다. 1895년 체포돼 심문 끝에 처형됐다.

1849년 정읍시 고부군에서 태어난 박만환 선생은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한 천석꾼이자 유학자다.

후학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3년 영주정사를 세운 뒤 1년에 300석씩 출연해 학생들의 숙식을 책임졌다.

아들(박승규)도 1919년 승동학원을 설립했다. 영주정사와 승동학원은 독립운동기를 상당수 길러냈으며, 영주정사는 유학 교육기관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아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인물을 발굴·조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친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고창군은 어버이날 민원실을 찾는 군민에게 '친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자군수'를 슬로건으로 섬김행정을 펼치고 있는 유기상 군수와 종합민원과 전직원 50여명이 한복을 차려입고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을 낭독했다.

또 이날 민원실을 방문한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카네이션을 선물 받은 어르신은 "어버이날을 맞아 행정기관에서 꽃을 달아주시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지난 4일 유기상(왼쪽) 고창군수가 종합민원과를 찾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